

한일 양국어 의성어에 있어서 음감(音感)의 차이에 대한 일고찰

김영옥*

차례

1. 들어가며
2. 한일 의성어의 음감의 차이
3. 설문조사를 통해 본 음감의 차이
4. 마치며

1. 들어가며

한일 양국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에 비해 비교적 의성어가 풍부하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음(音)의 묘사가 음운체계가 다름에 따라 각기 달리 표현되기 때문에, 일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어의 의성어는 어렵다.

그런데, 한일 양국어의 의성어 중에는 같은 음운환경 하에서 음소의 교체만으로, 뜻은 변하지 않으면서 음감(音感)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착목하여 양국어의 의성어를 음소의 교체 또는 첨가에서 오는 음감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의성어의 음감에 대한 연구는, 일본어 의성어의 음감에 대한 연구¹⁾와 한국어 의성어의 음감에 대한 연구²⁾ 등 자국(自國)의 의성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양국어의 의성어에 대해 음감을 대조고찰한 논문은 金良禮(1986)에 불과하다. 金良禮씨는 선행논문에서 金田一春彦³⁾의 협의(狹義)의 의음어(擬音語)인 음의 묘사만을 대상으로 음감을 고찰하고 있다. 즉, 동물의 울음소리 등 聲을 묘사한 의성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 의거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 聲을 묘사한 의성어까지 포함한, 金田一春彦의 광의(廣義)의 의음어를 연구대상으로 삼

* 고려대학교 강사

아, 공시론적(共時論的) 입장에서 양국의 의성어⁴⁾의 음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실제 용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성어를 찾아 음감을 고찰해 본 후, 이런 음감을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일본어의 의성어는 일본인에게 한국어의 의성어는 한국인에게 각기 100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해봄으로써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음감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음감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성어의 용례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小學校·中學校 교과서, 소설 등에서 수집하였으며 적당한 예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서 수집하였다. (채록한 용례의 출처는 논문 末尾의 <採録用例文獻一覽>을 참조)

2. 한일 의성어의 음감의 차이

한일 양국어의 의성어 중에는 「トントン, ドンドン」 「퐁당, 퐁당」처럼 자음 또는 모음 음소의 교체만으로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선행연구에 의거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용례를 수집하여 음감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의성어를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의성어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예를들면 「カチカチ音をたてる。」 「カチカチにおおる」처럼 하나의 어(語)가 의성어로도, 의태어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ヒュウと矢が飛んでいった。」의 「ヒュウ」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냄과 동시에 빠르게 날아가는 모양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의식 속에서 의성적(擬聲的)인 면과 의태적(擬態的)인 면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양자간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이 음감을 고찰하는 것인 만큼 문맥상 소리의 묘사라고 생각되는 용례를 주로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1. 일본어 의성어의 음감 및 차이

일본어의 의성어는 같은 조음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유성음(有聲音)이나 무성음(無

聲音)⁵⁾이나에 따라, 또는 모음이 달라지거나, 특수음인 促音, 發音 등의 유·무에 따라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자음교체, 모음교체, 축음유무, 발음(撥音) 유무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1.1. 자음교체

자음교체의 경우는 [k↔g], [t↔d], [p↔b], [s↔dz], [ʃ↔dʒ]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먼저, 무성연구개파열음 [k]와 유성연구개파열음 [g]의 의성어를 보면, [k]의 예는 23개, [g]의 예는 19개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 중 같은 음운환경하에서 [k↔g]의 교체에 의해 음감이 달라지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예1) a. あるばん、こやのうらで、キャッというさげびごえが、しました。(中略)
 いつものたぬきが、わなにかかっています。(小一下, p.45)⁶⁾
 b. 「(前略) いよいよ、ソーセージを作るぞ。さあ、子供たち、手伝え。」(中略) 豚の背中に手を突っこんだ。ギャッという低いうめき聲が聞こえる。
 (中一, p.152)

위 예문 a의 [kja:Q]은 너구리가 뒷에 걸려 놀라서 지르는 소리이고, b의 [gjaQ]은 돼지가 죽으면서 순간적으로 내는 신음소리이다. 너구리의 소리가 돼지의 소리보다 날카로운 느낌을, 돼지의 소리가 너구리의 소리보다 둔탁한 느낌을 주기도 하겠지만, 놀라서 소리를 지를 때, 더 예리하고 높고 긴 소리가 나게 되고, 죽으면서 내는 외마디 소리는 둔탁하고 낮고 짧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된다. [k]음이 주는 날카로운 느낌과 [g]음의 둔탁한 느낌을 구별하여 [kja:Q]과 [gjaQ]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例1)에서는 [k↔g]의 교체에 의해 「銳↔鈍, 高↔低」의 음감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외에 [k↔g]의 교체에 의해 음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예는 [kasaQ↔gasaQ], [katakata↔gatagata], [kaʃikaʃi↔gaʃigaʃi], [karakara↔garagara], [kjuQkjuQ↔gjuQgjuQ], [kotokoto↔gotogoto]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⁷⁾

2) 용례에서 찾은 무성치경파열음 [t]와 유성치경파열음[d]의 의성어는 [t]의 경우가 3예, [d]의 경우가 4예로 [k]와 [g]의 의성어보다 수가 아주 적었다. 이 중, 같은 음운환경

하에서 [t↔d]의 교체에 의해 음감이 달라지는 예를 보면, [tontoN↔dondoN], [toboN↔doboN]을 들 수 있는데,

- (예2) a. 入口の戸をトントンたたくと、中から「どうぞ。」という聲がした。(外, p.734)
 b. 父は酔っ拂って歸って來ると、鍵を持っていても、必ず玄關の戸をドンド
ンたたいて自分の歸宅を知らせる。(オ, p.34)

(예2)에서 [tontoN]과 [dondoN]은 둘 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나, a에서처럼 노크하는 소리는 작고 가벼운 느낌의 소리가 날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비해 b에서 처럼 술이 취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노크할 때 보다는 더 크고 탁한 소리가 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t]는 [d]에 비해 「小, 輕, 清」의 음감을, [d]는 [t]에 비해 「大, 重, 濁」음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용례에서 찾은 무성양순과열음 [p]와 유성양순과열음[b]의 의성어는 각각 22예, 15예이고, 이 중, 같은 음운환경 하에서 [p↔b]의 교체에 의해 음감이 달라지는 예를 보면,

- (例3) a. 大きな蛾が窓ガラスのむこうでパタパタしているのでぞっとした。(擬, p.238)
 b. 昨晚つりばしをしかけておいた辺りに、何かパタパタしているものが見えました。(中略)一羽だけであったが、生きているガンがうまく手に入ったので、じいさんはうれしく思いました。(中略)さかんにばたついたとみえて、辺り一面に羽が飛び散っていました。(小五下, p.7)

위 예문에서 [patapata]와 [batabata]는 둘 다 날짐승이 날개짓을 하는 소리이나, 나뉠이 날고 있는 소리인 [patapata]에 비해 뒷에 걸린 기러기가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려는 소리인 [batabata]가 더 크고, 강하고, 무거운 느낌의 소리라 생각된다. 이 외에 [p↔b]의 교체에 의해 음감이 달라지는 예는 [pjw:pjw:↔bjw:bjw:], [pa:N↔ba:N], [paʃiQ↔baʃiQ], [parapara↔barabara], [pw:pw:↔bw:bw:] 등이 있었다.

4) 무성과찰음 [ts]와 유성과찰음 [dz]의 의성어는 각각 6개, 2개의 용례를 찾을 수 있었

으며, 이 중 같은 음운환경 하에서 음감이 달라지는 예는 [tsjaratsjara↔dzjaradzjara], [ʃiri↔dʒiridʒiri]가 있었는데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例4) a. 管理人は、鍵の束をチャラチャラいわせながら、ドアをあけた。(擬, p.184)
 b. 長い鎖をジャラジャラ引きながら、犬が歩道を逃げて行く。(擬, p.145)

위 예문은 둘다 쇠붙이가 부딪쳐 나는 소리인데, 열쇠가 서로 부딪쳐 나는 소리인 a의 [tsjaratsjara]가 긴 쇠사슬이 땅에 질질 끌리면서 나는 소리인 b의 [dzjaradzjara]보다 맑고, 높고, 가벼운 느낌의 소리가 날 것이라 생각된다.

5) 용례에서 찾은 무성마찰음 [s]와 유성파찰·마찰음 [dz]의 의성어는 [s]가 8예, [dz]가 5예였는데, 이 중 [s↔dz]로 음감이 달라지는 예를 보면,

- (例5) a. サークスの馬が、首につけた鈴をシャンシャンいわせて登場。(擬, p.146)
 b. 消防自動車が、ジャンジャン鐘を鳴らしながら引き揚げていく。(擬, p.147)

(例5)의 [sjau~sjaN]은 말의 목에 달린 방울이 흔들리며 나는 소리이고, [dzjandzjaN]은 소방차가 종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로, 방울소리가 소방차의 종 소리에 비해 맑고 가벼운 느낌의 소리가 날 것이라 생각되며, [s↔dz]의 예는 이 외에 [sja:sja:↔dzja:dzja:], [sakusaku↔dzakudzaku] 등이 있었다.

이상 용례에서 살펴본 바 일본어 자음의 경우는 [k↔g], [p↔b]의 교체로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가 [t↔d], [s↔z], [c↔z]의 경우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고, 의성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무성자음은 유성자음에 비해 「小, 弱, 鋭, 輕, 清, 高」의 음감을, 유성자음은 무성자음에 비해 「大, 強, 鈍, 重, 濁, 低」의 음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2.1.2. 모음교체

모음교체에서는 일본어 모음의 수가 적은 탓도 있겠지만, [a↔o]의 교체 이외의 용례는

볼 수 없었다.

(예6) a. バンバンと兩手を打ち、「さあ、大安賣りだよ」と叫ぶおやじ。

(擬, p.249)

b. すると、ねずみは手をボンボンとたたいて、こんなことを言いました。

「齒医者さんがおいでになりましたよう。朝ごはんのしたくですよ。」

(小三下, p95)

(예6)에서는 모음 [a]와 [o]가 교체되어, 「大↔小, 強↔弱」의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a]가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하므로 [o]보다 크고 강한 음감을 주게 되고, [o]는 [a]만큼 입을 크게 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을 둥글게 해서 발음하므로 작고 약한 음이 된다는 音聲的 특징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이 외에 [a↔o]의 교체 예는 [gasagasa↔gosogoso], [kaʃikaʃi↔kofikofʃi], [garigari↔gorigori], [baribari↔boribori]가 있었다.

2.1.3. 축음유무

さ키와 さっき의 경우처럼 축음은 강조된 표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의성어의 경우를 보면,

(예7) a. 新聞をかさかさとたたむ音がする。(外, p.66)

b. 新聞配達がかさッと新聞を投げ込んで行った。(擬, p.48)

(예7) 은 같은 음운환경 하에서 축음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음감의 차이를 나타낸 예로 促音が 있음으로 해서 일회적(一回的)이며 순간적인 소리라는 느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를 [gasagasa]는 末音が 모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gasaQ]은 발음이 막히는 듯한 축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piʃipiʃi↔piʃiQ]도 같은 예이다.

2.1.4. 발음(撥音)유무

발음(撥音) 역시 축음과 마찬가지로 강조된 표현 (예들들면, *みな みんな*)에 많이 사용되는데, 의성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예8) おばあさんと向かい合ってすわって、うすを回していますと、初めのうちは ゴロゴロといせいのよい音をたてていたのだが、しだいにゴロン、ゴロンと聞えだし、(中略)そんなとき千枝子は、もうねむくてねむくてしかたがなくなっているが、くたびれているかどちらかです。(小六上, p.53)

(예9) a. 一時間目に机のパタパタを、かなりやると、それ以後は、机を離れて、窓のところに立って外を見ている。(窓, p.18)

b. するとお嬢さんは、まずフタを開けて、ノートを取り出した、と思うが早いか、パタン!とフタを閉めてしまいます。(窓, p.15)

이와같이 (예8)(예9)는 둘다 발음(撥音)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음감의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예8)에서는 발음(撥音)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느려지고, 멈춤이 있으면서 계속되는 느낌을, (예9)에서는 울림이 있으면서 여운이 남는 느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음(撥音)이 한 mora 의 길이를 지속하므로 (예8)과 같이 시간차를 두고, 느리게 회전하는 느낌을 주게 되고, 또 발음(撥音)이 비음(鼻音)이라 점, 즉, 숨이 코를 통해 빠져나가는 지속음이어서 (예9)와 같이 울림이 있고 여운이 남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 같다. 이외에 발음(撥音)유무로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는 [katakata↔kataN, kataN] [paʃipaʃi↔paʃiN]을 찾아볼 수 있었다.

2.2. 한국어 의성어의 음감 및 차이

한국어의 의성어는 초성의 자음요소가 평음(平音)·경음(濃音)·격음(激音)으로 교체되거나, 모음요소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교체됨에 따라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자음교체와 모음교체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2.1. 자음교체

평음·경음·격음의 의성어의 예는 각각49개, 56개, 41개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들

의 교체로 음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예10) a. 성물(聖物) 관리인 녀석은 쟁그렁쟁그렁 종을 흔들고 (中2-1, p.238)
 b. 어머니 등에 업혀 그렇게 가다가 쟁그렁쟁그렁 말방울소리에 언뜻 돌아보니 (후략) (봉, p.20)
- (예11) a. 동네편 쪽에서는 수군수군하더니 구둑소리가 나며 칼소리가 덜거덕거러었다. (중략) “순검” (韓, p.100)
 b. 밖에서는 잠겨지지 않는 문을 (中略) 연방 덜커덕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 화산택이를 경계하는 것쯤 눈치 못 채릴 화산택이도 아니었다. (중략) ‘누굴 도둑으로 아는가베, 아니꼬운 것….’(갯, p.263)
- (예12) a.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굉’ 하는 소리가 울렸다. 이것은 윤봉길 의사가 일본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에 참석한 일본 침략자들에게 던진 도시락 폭탄이 터지는 소리였다. (國4-1, p.48)
 b. 그런데 웬일인지 컷가는 점점 조용해지고, 지뢰망을 터뜨려야 한다는 의식만이 또렷해져 왔다. (중략) 박 소위는 힘껏 스위치를 눌렀다. “황 우르르…” 온 산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듯한 폭음이 일어났다. (國5-1, p.138)

위의 (예10)은 <평음↔경음>중 파찰평음 [dz]와 파찰농음 [t͡ɕ]⁸⁾가 교체된 예로 평음보다 경음이 강하고, 예리하고, 맑고, 높은 음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음↔경음>의 예는 이 외에도 [gatgatgat↔katkatkat][sekumsekum↔sekum̄sekum], [ɗalguɾlak↔alguɾlak], [buu↔buūbuu], [sogonsogon↔sogon̄sogon], [dzalguɾlan↔alguɾlan], [dzoldzoldzok↔oltoltol]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11)은 평음과 격음이 교체되는 예로 연구개파열평음 [g]보다는 연구개파열격음 [kʰ]가 더 거세고 예리한 소리라는 느낌이 든다. 용례 중 평음과 격음의 교체로 음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예는 이것 뿐이었다.

(예12)는 연구개파열농음 [ŋ]와 연구개파열격음 [kʰ]가 교체되는 경우로, [ŋ]보다는 [kʰ]를 사용했을 때, 더 크고 강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 찾아볼 수 있었던 [tan̄tan↔tʰantʰan], [t͡ɕal͡ɕak↔tʰal͡ɕak]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상 용례에서 살펴본 바 한국어의 자음교체는 주로 평음과 경음의 교체로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경음과 격음이 평음보다는 강조된 표현에 사용되고 있었다. 여

리고 순한 느낌의 표현에는 평음이, 명료하고 응축된 느낌에는 경음이 거센 느낌에는 격음이 사용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평음이 아주 약한 유기음이고, 경음이 무기음, 그리고 격음이 강한 유기음인데서 오는 음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2.2.2. 모음교체

용예에서 찾아본 양성모음의 의성어는 89개, 음성모음의 의성어는 91개로, 이 중 같은 음운환경하에서 모음의 교체에 의해 음감이 달라지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예13) a. 줄줄줄 흘러가는 시냇물에서 발 벗고 찰방찰방 재미있어요.
조약돌 하얀 모래 간지러워요. (國3-1, p.96)
b.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더니…(후략) (韓, p.337)
- (예14) a. 「그러면 다 자라!」 신참은 앉은 그대로 팔에다 얼굴을 묻고 눈을 감는다. 머리가 멍하다. 냄새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가 이를 바드득 간다. (중략) 「기침!」 기침 시간은 여섯 시다. (갯, p.172)
b. 할머니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네 이년! 뭐가 어찌구 어찌? 이년이 이제 아주 환장을 했구나! 이,이, 이 천하에 죽일년! 말이면 다하는 줄 알아? 이년!』 (代, p.431)
- (예15) a. (전략) 자글자글 기름이 끓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살이 노르께하니 익어가는 참인데, … (中1-1, p.90)
b. 질 나쁜 싸구려 식용유가 시커먼 번철 위에서 지글지글 끓으면서 화석 종류의 옷감이 타는 것과 흡사한 냄새를 (중략) 퍼뜨리고 있었다. (代, p.389)
- (예16) 작은 것에게는 젓을 먹이고 큰 것의 육을 먹고 성화받고 사나이에게 웅얼웅얼하는 잔말을 듣는다. 밥 지을 쌀도 없는데 밥 안 짓는다고 육을 한다. (중략) 이런 때는 온 종일 그 이튿날 아침까지 굶는다. 그때마다 말 없던 어머님이 웅알웅알 바가지 굶는 소리가 들린다. (韓, p.49)
- (예17) a. 풀 먹인 옷에서 외삭외삭 소리가 난다. (辭, p.1379)
b. 붉은 차마에서는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길을 땀 위석위석 소리

도 났다. (中1-2, p.109)

(예18) a. 컷가에서 모기소리가 앵 한다. (갯, p.206)

b. 옛장수 손아귀에는 벌이 쥐어졌다. (중략) 벌은 고스란히 있을 리가 없다. 한번 잉 소리를 내고는 그만 손바닥을 쏘아버렸다. (갯, p.12)

위의 예(13)에서 예(18)은 모음 [a↔ʌ][a↔u][a↔i][o↔u][wa↔wʌ][e↔i]가 교체되어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이다. 예(13)에서는 [cʰalɓaŋcʰalɓaŋ]보다는 [cʰʌlɓʌŋcʰʌlɓʌŋ]이 더 크고 무거운 느낌의 소리라 생각되며, 예(14)예(15)에서는 [ɓaɗuɗuɗuk][ɗzʌgʌɗzʌgʌɗ]보다는 [ɓuɗuɗuɗuk][ɗʒiɡʌɗʒiɡʌɗ]이 더 강한 느낌의 소리라 여겨진다. 예(16)의 [oŋʌoŋʌl↔uŋʌlʌŋʌl]에서는 「고(高)↔저(低)」의 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o]모음보다는 [u]모음이 음성학상 발음위치가 더 안쪽이므로, 그 만큼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 깊고, 어둡고, 저음의 소리가 나게 되는 점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17)에서는[wʌsʌkwʌsʌk] 보다 [wasakwasak]이 가볍고 맑고 예리한 소리라 생각되며, 예(16)예(17)에서는 [o↔u][wa↔wʌ]가 교체됨과 동시에 [a↔ʌ]도 교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18)에서도 [e↔i]가 교체되어 있는데, [eŋ]보다는 [iŋ]의 의성어가 더 큰 소리라는 느낌이 든다. 이 외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교체에 의해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는 [kʌl̄kʌl̄↔kʌl̄kʌl̄ʌl̄], [tʌllʌŋtʌllʌŋ↔tʌllʌŋtʌllʌŋ], [ɓʌsʌlʌk↔ɓʌsʌlʌk], [cʰʌl̄sʌkʌl̄↔cʰʌl̄sʌkʌl̄ʌl̄], [cʰʌl̄kʌkʌl̄↔cʰʌl̄kʌkʌl̄ʌl̄], [tʰʌbʌktʰʌbʌk↔tʰʌbʌktʰʌbʌkʌl̄][hʌhʌhʌhʌl̄], [ɓʌkʌkʌl̄↔ɓʌkʌkʌl̄], [kʌl̄kʌkʌl̄↔kʌl̄kʌkʌl̄], [kʰʌl̄lʌkʰ↔kʰʌl̄lʌkʰ] 등이 있었다.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ʌ]의 교체가 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고, 의성어에 따라 나타나는 음감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양성모음은 음성모음에 비해 「小, 弱, 銳, 輕, 清, 高」의 음감을 음성모음은 양성모음에 비해 「大, 強, 鈍, 重, 濁, 低」의 음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thru론(小結論)

이상, 용례를 통하여 일본어, 한국어 의성어의 음감을 고찰해 본 바를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日本語	子音	無聲音	小, 弱, 銳, 輕, 清, 高	有聲音	大, 強, 鈍, 重, 濁, 低
	母音	[a]	大, 強	[o]	小, 弱
	促音	無	繼續音	有	瞬間音, 一回音
	撥音	無	速, 繼續	有	遲, 斷續, 響, 餘韻
韓國語	子音	平音	弱, 鈍, 濁, 低	濃音	強, 銳, 清, 高
		平音	鈍	激音	銳
		濃音	小, 弱, 輕	激音	大, 強, 重
	母音	陽性	小, 弱, 銳, 輕, 清, 高	陰性	大, 強, 鈍, 重, 濁, 低

표에서 보듯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모든 음감의 차이를 용례고찰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大小, 強弱, 銳鈍, 輕重, 清濁, 高低」의 음감의 차이(일본어 특수음소 제외)가 양국어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설문조사를 통해 본 음감의 차이

용례 고찰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어 의성어의 음감의 차이를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일본어의 의성어는 일본인에게, 한국어의 의성어는 한국인에게 각기 100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본어의 경우는, 日本大使館, 日本文化院에 근무하거나 外國語大學校, 延世大學校 언어연구 교육원에서 한국어 학습을 하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어의 경우는 德成女子大學校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한일 양국어 의성어의 주된 음감의 차이 「大小·強弱·銳鈍·輕重·清濁·高低」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음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시된 것 이외의 음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분석에 있어서는 먼저, 설문으로 제시된 문항에 대해 음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인원수를 표로 작성하여, 음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즉, 각각의 의성어에서 어떤 음감을 더 많이 느끼고, 또 덜 느끼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분석해 보았다.

3.1. 일본어에 있어서의 음감

3.1.1. 자음교체

1) 먼저 [k↔g]에 대하여는 ㉠カサカサ↔ガサガサ ㉡カタカタ↔ガタガタ ㉢カチカチ↔ガチガチ ㉣カラカラ↔ガラガラ ㉤コトコト↔ゴトゴト의 5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음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을 분석해 보면, ㉠의 카사카사↔가사가사는 카사카사를 가벼운 소리로 느낀 사람이 많았고, 가사가사는 무거운 소리보다는 큰 소리로 느낀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의 카타카타↔가타가타는 「弱↔強」, ㉢의 카치카치↔가치가치와 ㉣의 카라카라↔갈라갈라는 「輕↔重」, ㉤의 코트코트↔고트고트는 「小↔大」의 음감의 차(差)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t↔d]에 관하여는 ㉠トボン↔ドボン, ㉡トントン↔ドンドンの 2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의 トボン↔ドボン에서는 「輕↔重」의 음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의 トントン↔ドンドン에서는 トントンを 가벼운 소리로 도ンドン은 크고 강한 소리로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ONDON을 무거운 소리로 느끼는 사람(94명)도 크고 강한 소리로 느끼는 사람(95명)과 그다지 차이는 없었다. 또한, トボンを 맑고, 높고, 예리한 소리로 느낀 사람은 반수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3) [p↔b]에 관하여는 ㉠パタパタ↔バタバタ ㉡ピューピュー↔ビュビュ ㉢プープ↔ブーブ ㉣パラパラ↔バラバラ의 4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음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의 파타파타↔바타바타와 ㉣의 파라파라↔바라바라에서는 「輕↔重」의 음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의ピューピュー↔비ュ비ュ에서는ピューピュー는 높은 소리로 비ュ비ュ는 강한 소리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었다. ㉢의プープ↔ブーブ에서는プープ는 가벼운 소리로 ブーブ는 탁한 소리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의ピューピュー와 ㉢의プープ에서는「小, 弱」의 음감을, ㉣의 파라파라에서는「銳」의 음감을 느낀 사람이 반 수 이하임을 알 수 있다.

4) [tɕ↔dʒ]의 음감 차에 대하여는 ㉠チャラチャラ↔ジャラジャラ ㉡チリチリ↔ジリ

ジリの 2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차라차라↔ジャラジャラ에서는 「輕↔重」의 음감을, ㉡의 치리치리↔ジリジ리에서는 「弱↔強」의 음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의견란에 ㉠의 차라차라는 「少」로, ジャラジャ라는 「多」로 기입한 사람이 각각 5명, 7명이 있어, 부딪치는 내용물의 많고 적음도 음감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s↔dz]에 대하여는 ㉠サクサク↔ザクザク ㉡シャ-シャ↔ジャ-ジャー ㉢シャンシャン↔ジャンジャン의 3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응답한 인원수를 분석해 보면, ㉠サクサク↔ザクザク에서는サクサク는 가벼운 소리로, ザクザク는 탁한 소리로, ㉡シャ-シャ↔ジャ-ジャー와 ㉢의 シャンシャン↔ジャンジャン에서는 シャ-シャ와 シャンシャン은 가벼운 소리로, ジャ-ジャー와 ジャンジャン은 강한 소리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의견란에 ㉡シャ-シャ↔ジャ-ジャー에 대하여 「少↔多」로 기입한 사람이 각각 6명, 10명이 있었고, 「勢いがない↔勢いがある」로 기입한 사람이 한 명 있어, シャ-シャ는 물의 양이 적고, 약하게 뿜어나오는 소리로, ジャ-ジャー는 물의 양이 많고 강하게 뿜어나오는 소리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자음교체에서는 의성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성음↔유성음([k↔g][t↔d][p↔b][s↔dz][z↔dʒ)]>에서 대체로 「輕↔重, 小↔大, 弱↔強, 清↔濁, 高↔低, 銳↔鈍」의 순으로, 용례의 고찰에서 얻어진 모든 音感의 差異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모음교체

모음교체에 대하여는 ㉠가사가사↔고소고소 ㉡카타카타↔코토포 ㉢카치카치↔코치코치 ㉣가리가리↔고리가리 ㉤반반반↔폰폰폰 ㉥가보가보↔고보고보 ㉦바리바리↔보리보리의 7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응답한 인원수를 분석하면, ㉠의 가사가사↔고소고소와 ㉥의 가보가보↔고보고보에서는 「大↔小, 強↔弱」의 음감을, ㉢의 카치카치↔코치코치와 ㉣의 가리가리↔고리가리에서는 「銳↔鈍, 高↔低」, ㉤의 반반반↔폰폰폰과 ㉦의 바리바리↔보리보리에서는 「大↔小, 強↔弱, 銳↔鈍, 高↔低」, ㉡의 카타카타↔코토포에서는 「高↔低」의 음감을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음교체에서는 용례의 고찰과는 달리 「大↔小, 強↔弱」외에 「銳↔鈍, 高↔低」의 음감의 차이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3. 축음유무

축음유무에 대하여는 ㉔가사가사↔가사ッ의 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음감을 느낀 정도의 差는 가사가사는 「濁(58), 鈍(49), 低(40), 輕(35), 小(33), 弱(31)」, 가사ッ은 「濁(54), 重(47), 強(44), 大(43), 低(40), 鈍(3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타란에는 「繼續音↔瞬間音·一回音」으로 13명이 기입하고 있어, 반수 이하이긴 하지만 용례의 고찰에서 볼 수 없었던 「輕↔重, 小↔大, 弱↔強」의 상대적 음감과 용례 고찰에서 얻은 「繼續音↔瞬間音·一回音」의 음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4. 발음(發音)유무

발음(撥音)유무에 대하여는 ㉔ゴロゴロ↔ゴロン、ゴロンの 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응답을 얻었다.

ゴロゴ로는 「濁(55), 鈍(54), 低(53), 重(49), 大(34), 強(31)」, ゴロン、ゴロン은 「重(70), 鈍(65), 濁(61), 大(52), 低(50), 強(42)」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인 음감의 차이는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타란에 ゴ로ゴ로는 「速(5), 繼續(5)」, ゴロン、ゴロン은 「遲(6), 斷續(4)」으로 기입되어, 적으나마 용례의 고찰에서 얻어진 「速↔遲」, 「繼續↔斷續」의 음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한국어에 있어서의 음감

3.2.1. 자음교체

1) <평음↔경음>에 대하여는 ㉔달그락↔딸그락 ㉕부드득↔뿌드득 ㉖새근새근↔썰근썰근 ㉗잘그랑↔잘그랑의 4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㉔의 달그락↔딸그락에서는 달그락은 낮은 소리로, 딸그락은 가벼운 소리로 느낀 사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딸그락을 높은 소리로 느끼는 사람(69명)도 가벼운 소리(70명)로 느끼는

사람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⑥의 부드럽↔뿌드득과 ④의 잘그랑↔잘그랑에서는 「低↔高」의 음감을 ③새근새근↔췌근췌근에서는 「弱↔强」의 음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2) <평음↔격음>에 관하여는 ①덜거덕↔덜커덕의 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여 덜거덕은 낮은 소리로 덜커덕은 큰 소리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重↔輕」 「濁↔淸」의 음감보다 「低↔高, 小↔大, 弱↔强, 鈍↔銳」의 음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경음↔격음>에 대하여는 ①뽕↔꿩 ②땅, 땅↔탕, 탕 ③쨍↔철컱의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①의 뽕↔꿩 ②의 땅, 땅↔탕, 탕에서는 「小↔大」의 음감을, ③쨍↔철컱에서는 쨍은 약한 소리로, 철컱은 큰 소리로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철컱을 강한 소리로 느끼는 사람(67명)도 큰 소리로 느끼는 사람(68명)과 그다지 차이는 없었다.

이상 자음교체에서는 의성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음↔경음>에서는 「低↔高, 重↔輕, 弱↔强, 鈍↔銳, 濁↔淸, 大↔小」, <평음↔격음>에서는 「低↔高, 小↔大, 弱↔强, 鈍↔銳, 重↔輕, 濁↔淸」, <경음↔격음>에서는 「小↔大, 弱↔强, 輕↔重, 高↔低, 淸↔濁, 銳↔鈍」의 순으로 음감을 느끼고 있어, 용례고찰에서 볼 수 없었던 <평음↔경음>에서는 「重↔輕, 大↔小」, <평음↔격음>에서는 「低↔高, 小↔大, 弱↔强, 重↔輕, 濁↔淸」, <경음↔격음>에서는 「高↔低, 淸↔濁, 銳↔鈍」의 음감까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2. 모음교체

모음교체에 대하여는 ①찰방찰방↔철병철병 ②잘랑↔절렁 ③바지작↔부지작 ④박박↔복복 ⑤자글자글↔지글지글 ⑥췌근췌근↔씨근씨근 ⑦꿀꺽↔꿀꺽 ⑧옹알옹알↔옹얼옹얼 ⑨와삭와삭↔위석위석 ⑩와르르↔우르르 ⑪와지끈↔우지끈 ⑫왕↔왕의 12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였으며 예에 대한 회답은 ①④⑤⑥⑦⑩에서는 「輕↔重」의 음감을, ⑧⑨⑪⑫에서는 「小↔大」의 음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또한 ②의 잘랑↔절렁과 ③의 바지작↔부지작에서는 잘랑과 바지작은 작은 소리로, 절렁과 부지작은 무거운 소리로 느끼

는 사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성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성 모음↔음성모음>의 교체로, 「輕↔重, 小↔大, 弱↔强, 高↔低, 清↔濁, 銳↔鈍」의 순으로, 용례 고찰에서 얻어진 모든 음감의 차이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日本語	子音	無聲音	小, 弱, 銳, 輕, 清, 高	有聲音	大, 强, 鈍, 重, 濁, 低
	母音	[a]	大, 强, 銳, 高	[o]	小, 弱, 鈍, 低
	促音	無	繼續音, 小, 弱, 輕	有	瞬間音, 一回音, 大, 强, 重
	撥音	無	速, 繼續	有	遲, 斷續, 響, 餘韻
韓國語	子音	平音	大, 弱, 鈍, 重, 濁, 低	濃音	小, 强, 銳, 輕, 清, 高
		平音	小, 弱, 鈍, 重, 濁, 低	激音	大, 强, 銳, 輕, 清, 高
		濃音	小, 弱, 銳, 輕, 清, 高	激音	大, 强, 鈍, 重, 濁, 低
	母音	陽性	小, 弱, 銳, 輕, 清, 高	陰性	大, 强, 鈍, 重, 濁, 低

4. 마치며

이상, 공시적(共時的) 입장에서 양국 의성어의 음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본어는 주로, 자음의 교체([k↔g], [t↔d], [p↔b], [ts↔dz], [s↔dz])에 의해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어는 주로 모음의 교체에 의해 음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어의 경우는 자음교체 중 [k↔g]와 [p↔b]의 교체가 수적으로 많았으며, 모음은 [a↔o]의 교체만을 볼 수 있었다. 한국어의 경우는 자음에서는 <평음↔경음>의 교체가, 모음에서는 [a↔ㅏ]의 교체가 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용례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어 자음의 경우는 용례고찰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음감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모음 [a↔o]의 교체에서는 용례고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銳↔鈍, 高↔低」의 음감도 느끼고 있었다. 축음의 경우, 회답자(回答者)는 용례고찰에서 얻어진 음감외에 「小↔大, 弱↔强, 輕↔重」의 음감 차도 느끼고 있었다. 한국어 자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평음↔

경음>에서는 「重↔輕, 大↔小」, <평음↔격음>에서는 「低↔高, 小↔大, 弱↔強, 重↔輕, 濁↔清」, <경음↔격음>에서는 「高↔低, 清↔濁, 銳↔鈍」등 용례고찰에서 볼 수 없었던 음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모음에서는 <양성모음↔음성모음>의 교체에 의해 회답자는 용례고찰에서 얻어진 모든 음감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본고는 교과서·소설 등을 중심으로 예문을 발췌하여, 예문이 균형있게 모이지 않았고, 예문의 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문제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注】

- 1) 金田一春彦(1982), 泉邦壽(1976) 參照
- 2) 鄭寅承(1938), 許雄(1981), 姜憲圭(1968) 參照
- 3) 金田一春彦氏は 擬音語를 音을 描寫한 擬音語와 聲을 描寫한 擬聲語로 區別하고 있다. 金田一春彦 『日本語セミナ・二』(筑摩書房, 1982), 132-133面
- 4) 韓國에서는 擬音語란 用語보다는 擬聲語가 汎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本 論文에서는 擬聲語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 5) 日本語의 子音을 清音·濁音 등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本 論文에서는 김양례씨와 같이 音聲學 내지 音韻論的 用語라 할 수 있는 有聲音·無聲音이란 用語를 사용하기로 한다.
- 6) 麟文()안의 표시는 出典의(書名, 페이지)이다.
- 7) 지면관계상 例文은 하나씩만 들기로 한다.
- 8) 음성기호는 이호영(1996)의 음성기호에 준한다.

參考文獻

<單行本>

- 金敏洙 『新國語學』(一潮閣, 1974)
 金亨圭 『國語學概論』(一潮閣, 1976)
 李崇寧 『國語學論攷』(서울東洋出版社, 1960)
 이한섭 『일어학개설』(한신문화사, 1989)
 이호영 『국어음성학』(태학사, 1996)
 李熙昇 『國語學概說』(民衆書林, 1977)
 許雄 『國語音韻學』(正音社, 1981)
 泉邦壽 「擬聲語·擬態語特質」 『日本語の語彙と表現』(大修館書店, 1976)
 大坪併治 「象徴語彙の歴史」 『講座 日本語學4』(明治書院, 1982)
 金田一春彦 「擬音語と擬態語」 『日本語セミナ・二』(筑摩書房, 1982)
 鈴木孝夫 「音韻交替と意義分化の關係について」 『日本の言語學 第一卷』(大修館書店,

1980)

西尾寅弥 「音象徴語における意味・用法の轉化の一類型」『現代語彙研究』(明治書院, 1988)

山口仲美 『犬は「びよ」と鳴いていた』(光文社, 2002)

山本弘子 『擬聲語・擬態語』(専門教育出版, 1993)

<論文・雑誌>

姜憲圭 「音聲象徴과 sense 및 meaning의 分化에 의한 語彙擴張 研究」(『국어교육 No.14』, 1968)

金良禮 『韓日兩國語の擬音語の對照考察』(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86)

卞贊壽 『韓・日兩國語의 象徴語 意味比較』(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1994)

青山秀夫 「現代朝鮮語の擬聲語」(『朝鮮學報 第65輯』, 1972)

尹榮基 『日・韓 兩國語 象徴語 對照研究』(啓明大學校 大學院, 1985)

李癸玉 『兩國の國語教科書に表われた擬聲語・擬態語の對照比較』(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80)

_____ 「韓日兩國語における擬聲語・擬態語の對照比較」(『培花論輯 第4輯』, 1985)

_____ 「喜・怒에 관한 韓日兩國의 擬聲語・擬態語의 意味論的 小考」(『培花論輯 第5輯』, 1986)

鄭永燮 『日本語における擬態語の形態の對立とその語感の違ひに關する一考察』(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87)

鄭寅承 「母音相對法則과 子音加勢法則」(『한글 6권 9호』, 1938)

車德鎬 「日本語 象徴詞의 考察」(『日語日文學研究 제6輯』, 韓國日語日文學會, 1986)

崔鎬哲 『現代國語의 象徴語에 對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4)

堀井令以知 「擬音語・擬態語の言語學」(『日本語學 7月号』, 明治書院, 1986)

宮地裕 「擬音語・擬態語の形態論小考」(『國語學 115号』, 1978)

【採錄用例文獻一覽】

<日本語>

* 小學校國語科用教科書, 光村図書, 2003

例) 1年生 下卷 → (小一下03)

* 中學校國語科用教科書, 光村図書, 2001

例) 3年生 → (中三01)

* 小學校國語科用教科書, 光村図書, 1995 → (小一下)

* 中學校國語科用教科書, 光村図書, 1995 → (中三)

- * 赤川次郎, *おだやかな隣人*, 光文社文庫, 1992 → (お)
- * 小田切進編, *日本の短篇小説*, 潮文庫, 1988 → (日)
- * 乙武洋匡, *五体不満足*, 講談社青い鳥文庫, 2000 → (五)
- * 黒柳徹子,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講談社文庫, 1989 → (窓)
- * 田守育啓, *オノマトペをめぐって*, 大修館書店, 1989 → (オ)
- * 三浦綾子, *自我の構図*, 講談社文庫, 1982 → (自)
- * 向田邦子, *隣りの女*, 文春文庫, 1984 → (隣)
- * 浅野鶴子編, *擬音語・擬態語辭典*, 角川書店, 1981 → (擬)
- * 天沼寧編, *擬音語・擬態語辭典*, 東京堂出版, 1984 → (語)
- * 尾野秀一編著, *日英擬音・擬態語活用辭典*, 北星堂書店, 1984 → (英)
- * 文化廳, *外國人のための基本語用例辭典*, 1981 → (外)

<韓國語>

- * 初等學校 *國語 읽기 教科書*, 教育인적자원부, 2003
例) 1學年 1學期 → (初1-1)
- * 國民學校 *國語教科書*, 教育部, 1995 → (國1-1)
- * 中學校 *國語教科書*, 教育部, 1995
例) 1學年 1學期 → (中1-1)
- * 國民學校 *音樂教科書*, 教育部, 1995
例) 4學年 → (音4)
- * 공지영, *봉순이언니*, 푸른숲, 1998 → (봉)
- * 김중미, *깡이부리말아이들*, 창작과비평사, 2001 → (깡)
- * 오영수, *갯마을*, 마당문고, 1983 → (갯)
- * 韓國代表文學全集 17, 三中堂, 1982 → (代)
- * 韓國代表文學全集 18, 三中堂, 1982 → (表)
- * 韓國名短篇選, 金字堂, 1980 → (韓)
- * 青山秀夫編著, *朝鮮語象徵語辭典*, 東京 大學書林, 1991 → (朝)
- * 安田吉實・孫洛範, *韓日辭典*, 民衆書林, 1992 → (辭)

韓日 兩國語 擬聲語の音感の差に對する一考察

金英玉

日本語と韓國語の擬聲語は同じ音韻環境の下で音素の交替または添加によって意味には変化は生じないものの、音感の差が生じるという共通点がある。筆者はこの事實に注目し、兩國語の擬聲語の音感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まず、先行研究について調べた後、擬聲語の用例を収集し、擬聲語辭典などをもとに音感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さらに、實際に各言語の話者は擬聲語の音感をどのように感じているか調べるために、日本語については韓國在名の日本人100名を對象とし、韓國語については大學生100名を對象として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た。小學校・中學校教科書、小説、辭典などから擬聲語の用例を集めてそれぞれの音感について調べて見た結果、先行研究で指摘されたすべての音感の差は得られなかったが、日本語の特殊音を除くと、兩國語ともに「大小、強弱、銳鈍、輕重、清濁、高低」の音感の差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そこで、實際に兩國語の話者がこのような音感の差をどのように感じているか、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分析してみた。その結果、次のようなことがわかった。

日本語の場合、①<無聲音↔有聲音>の交替によって、回答者は 用例の考察で得られたすべての音感の差を感じていた。②母音 [a↔o]の交替では、用例の考察で得られた音感のほかに「銳↔鈍、高↔低」の音感の差も感じているという回答もあった。③促音の場合、回答者は用例の考察で得られた音感のほかに、「小↔大、弱↔強、輕↔重」のような音感の差も感じていた。

韓國語の場合、①回答者は、用例の考察で得られた音感のほかに、<平音↔濃音>では、「重↔輕、大↔小」、<平音↔激音>では、「低↔高、小↔大、弱↔強、重↔輕、濁↔清」、<濃音↔激音>では、「高↔低、清↔濁、銳↔鈍」のような音感の差も感じていた。②母音では、<陽性母音↔陰性母音>の交替により、回答者は用例の考察で得られたすべての音感の差を感じているということがわかった。今回の研究を通し、日

本語の場合、音感の差は、主に子音交替によって生じるが、韓國語の場合は母音交替によって生じるということを再確認すると同時に、日本語の子音交替の中では、[k]と[g]、[p]と[b]の交替が多く、韓國語の子音では平音と濃音の交替が、母音では[a]と[ʌ]の交替が多いという結果も得た。